

정책토론회 자료 2006-03

##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관련 정책토론회

일시 : 2006년 3월 10일(금) 16:00~20:00  
장소 : 그레이스 호텔 크리스탈홀(8층)

韓國保健社會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장애인복지연구팀

## ◆ 진행 순서 ◆

- 16:00 ~ 16:20 참석자 등록, 자료집 배부
- 16:20 ~ 16:30 개회 및 일정 소개
- 16:30 ~ 17:00 주제발표 :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주요 결과  
- 발표자 : 변용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7:00 ~ 17:20 휴식 및 커피 브레이크
- 17:20 ~ 18:00 토의
- 18:00 ~ 20:00 저녁식사
- 20:00 ~ 폐회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주요 결과 요약

2006. 3

韓國保健社會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장애인복지연구팀

# ◆ ◆ ◆ ◆ ◆ 목 차 ◆ ◆ ◆ ◆ ◆

I. 조사개요 .....	1
1. 조사의 근거 및 목적 .....	1
2. 조사 내용 .....	1
3. 조사 방법 .....	3
II. 조사현황 .....	4
III. 주요 조사 결과 .....	6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	6
2. 재가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	9
3. 재가장애인의 사회적 특성 .....	17
4. 재가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	21
5.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	28
IV. 정책 건의 및 시사점 .....	34

# 1. 조사개요

## 1. 조사의 근거 및 목적

-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동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 파악과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2005년도에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는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에 이은 제6차 조사임.

## 2. 조사 내용

### 가. 조사 내용 Ⅰ: 가구 및 장애 판별 조사

#### 가구조사

-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건강보험 가입 여부 및 형태, 소득 및 지출수준, 가구규모, 세대구성, 주택형태 등

#### 장애 판별조사

- 법정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15개 유형)
- 향후 범주확대 장애: 만성알콜 및 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기타(9개 유형)

#### 나. 조사 내용 Ⅱ: 장애인 개별 조사

-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발생시기, 장애원인, 장애정도, 장애부위, 질환명 등
-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진단여부, 진단시기, 치료시기, 치료, 향후 필요한 건강 및 재활 관련 의료기관 등
- 일상생활지원: 일상생활정도(ADL), 수단적 일상생활정도(IADL), 일상생활의 타인의존도, 도움제공자유형, 유료보호자 고용의향 등
-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소지여부 및 종류,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종류 등
- 보육·교육: 재학중인 보육시설·유치원·조기교육시설 유형, 이용시간, 비용,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생활의 불편도, 통학거리 및 시간 등
- 취업 및 직업생활: 취업상태, 직업훈련, 미취업상태, 미취업 이유, 정부에 바라는 점 등
- 경제상태: 경제적 어려움 정도, 개인 소득의 수입원, 가입된 연금유형, 차량소유, 장애로 인한 비목별 추가소요 비용 등
-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여부, 배우자의 장애유무, 자녀수, 자녀의 장애유무, 자녀 양육 및 교육시 어려운 점, 출산·임신·육아의 어려운 점,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필요정도 등
- 여가 및 사회활동: 외출정도, 집밖 활동시 불편한 점, 이용하는 교통수단, 종교유무, 문화·여가활동영역별 참여빈도, 국내여행 경험 유무,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 유무 등

-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건강상태, 생활만족도, 가족폭력·성폭력 경험, 사회적 차별의 경험 및 대처방법 등
-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장애등록 여부 및 장애등급, 장애등록으로 인한 혜택, 미등록 이유,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도, 가장 원하는 서비스,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시설입소 의향, 장애인 등록제도 인지도 및 인지경로, 사회나 국가에 바라는 점 등

#### 다. 조사 내용Ⅲ: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장애출현율,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무호적자 여부 등을 조사함.

### 3. 조사 방법

#### 가. 가구부문조사 :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모집단 : 각 시도의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 및 가구원
- 표본의 크기 : 200개 표본조사구의 약 45,000가구(조사구당 평균 225가구)
- 표본조사구 추출 : ①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를 이용하여 220가구 이상이 되도록 3~5조사구가 통합된 187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2004년 10월 말까지의 신축아파트 중에서 220~229가구가 포함되는 13개 표본조사구를 추출.  
② 각 표본조사구에서는 평균 225가구가 되도록 220~229가구를 조사

#### 나. 사회복지시설 조사 : 우편설문조사

- 조사대상: 1,063개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모자·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시설) 거주자(약 85천여명) 전수 조사

## II. 조사현황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총 200개 조사지역의 방문가구수는 45,285가구이고, 이 중 40,556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본 조사의 완료율은 89.6%로서 2000년 조사 완료율 89.3%보다 약간 상승함.

□ 조사완료가구 40,556가구의 가구원 수는 119,306명으로서 2000년 조사 완료 가구원 수 123,721명에 비해 4,415명이 감소함.

– 이는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2000년 3.14명에서 2005년 2.94명으로 감소한 결과임.

※참고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한 국 <sup>1)</sup>				일 본 <sup>2)</sup>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3.12명	2.99명	2.89명	2.81명	2.70명	2.61명	2.55명	2.52명

자료: 1) 통계청, 『Household Projec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2000-2020』, 2002

2)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ousehold Projections for Japan by Prefectures: 1995-2020 Reported on March 2000』, 2000

□ 이들 가구원 중 장애인은 모두 5,466명인 것으로 나타나 2000년에 조사된 장애인 수 4,125명에 비해 1,341명 증가하였음.

– 이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장애범주가 기존의 10개 범주에서 15개 범주로 확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1〉 2000년도와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현황 비교

구분	조사지역수	대상가구수	완료가구수	조사완료율	조사완료 가구원수	조사 장애인수
2005년도	200지역	45,285가구	40,556가구	89.6%	119,306명 (2.94명/가구)	5,466명
2000년도	200지역	44,128가구	39,411가구	89.3%	123,721명 (3.14명/가구)	4,125명
비 고	-	-	-	-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감소	1,341명 증가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조사는 총 1,063개 시설 중 1,052개 시설 (99.0%) 거주자 84,520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 되었으며, 이 중 장애인은 전체 거주자의 56.4%인 47,629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2〉 2005년도 장애인 시설조사 실태조사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회수 시설수	미회수 시설수	전체 입소자수	총장애인수	등록장애인수	무호적자수
장애인	274	274	-	19,291	18,910	18,596	5,382
아동	249	247	2	17,734	497	365	744
노인	396	388	8	22,389	10,236	2,929	639
여성	41	41	-	2,714	46	45	-
부랑인	42	42	-	9,186	6,651	1,966	2,434
정신요양	56	55	1	12,471	10,838	3,954	1,928
한센병	5	5	-	735	451	429	-
총계	1,063	1,052	11	84,520	47,629	28,284	11,127

### Ⅲ. 주요 조사 결과

####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 가. 2005년도 장애인구 및 출현율

- 전국의 장애인은 2,148.7천명으로 추정되어, 2000년의 1,449.5천명에 비해 699.2천명이 증가함.
  - 이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2,101.1천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47.6천명임.

〈표 3〉 2005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 천명)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전체
2005년	장애인수	2,101,057	47,629	2,148,686
	출현율	4.50	-	4.59
2000년	장애인수	1,398,177	51,319	1,449,496
	출현율	2.98	-	3.09

-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은 4.59%로서 2000년의 3.09%에 비해서는 1.50% 포인트 증가함.

##### 나. 장애인 출현율의 국제 비교

-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은 법정장애의 범주 및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일본 4.7%, 독일 10.2%, 미국 19.3%, 영국 19.7%로서 2005년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 4.59%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 주요국의 장애인 출현율

(단위: %)

구분	한국 (2000)	한국 (2005)	일본 (2000)	독일 (2003)	미국 (2000)	영국 (2004)
출현율	3.09	4.59	4.70	10.20	19.30	19.70

자료: 1) 영국 : www.statistics.gov.uk,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the Disabled People, 2005

2) 미국: U.S. Census Bureau, Disability Status: 2000, 2003

3) 일본: Cabinet Office of Government of Japan, "White Paper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3, 2003.

4) 독일: http://www.destatis.de/presse/englisch/pm2004/p5140085.htm

다. 장애 유형별 추정 장애인 수

□ 재가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은 1,005,618명, 뇌병변장애인은 270,853명의 순으로 많고, 안면장애인이 4,394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2000년과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 장애인수 비교

(단위: %, 명)

구분	2000년 실태조사	등록 장애인수 <sup>1)</sup>	2005년 실태조사	등록률 <sup>2)</sup>	
계	1,449,496명	1,669,329	2,148,686	77.7	
주된 장애 유형별 장애인 수	지체장애	605,127명	923,183	1,005,618	91.8
	뇌병변장애	223,246명	154,614	270,853	57.1
	시각장애	181,881명	180,526	221,166	81.6
	청각장애	148,707명	151,184	229,159	66.0
	언어장애	26,871명	13,874	20,947	66.2
	정신지체	108,678명	123,868	125,563	98.7
	발달장애	13,481명	8,754	23,478	37.3
	정신장애	71,797명	59,223	91,253	64.9
	신장장애	25,284명	40,288	40,355	99.8
	심장장애	44,424명	12,226	42,007	29.1
	호흡기장애	-	10,815	30,186	35.8
	간장애	-	4,583	13,443	34.1
	안면장애	-	1,311	4,394	29.8
	장루·요루장애	-	8,848	15,508	57.1
간질장애	-	6,032	14,756	40.9	

주: 1 기존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신장, 심장): 2,070,399명

2. 신규 장애유형(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78,287명

자료: 1) 2005년 2/4분기 현재 장애등록자 수(보건복지부)

2) 등록률 =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장애인수 / 등록 장애인수) × 100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중복 장애유형을 ‘건’으로 환산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출현율을 구해보면,

- 인구 100명 중 지체장애가 있는 인구는 2.24명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음.
- 다음은 뇌병변장애로서 인구 100명당 0.64명 수준임.

〈표 6〉 개별 장애유형별 장애 출현율

(단위: 천명, %)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장애인 수	1,048	301	280	302	237	164	35	105	41	59	37	16	5	17	27
출현율	2.24	0.64	0.60	0.65	0.51	0.35	0.07	0.22	0.09	0.13	0.08	0.03	0.01	0.04	0.06

## 라. 장애인 가구 출현율

□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944,791가구로 추정되어 전체 조사 대상 15,864,809가구의 12.3%로 나타남.

〈표 7〉 2005년도 전국 지역별 장애인 가구 출현율

(단위: 가구, %)

구분	동 지역			읍·면 지역	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전체가구수	3,295,283	4,117,639	5,275,660	3,176,227	15,864,809
장애인 가구수	373,355	459,409	575,898	536,129	1,944,791
출현율	11.3	11.2	10.9	16.9	12.3

## 2. 재가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 가. 장애 발생원인과 치료

대부분의 장애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0%)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사고(36.6%)보다 질환(52.4%)이 더 높게 나타남.

〈표 8〉 재가장애인의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인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선천적원인	1.6	2.2	5.4	3.7	22.8	23.2	13.2	0.9	1.9	10.1	-	-	19.3	-	8.8	4.0	
출산시원인	0.1	2.3	0.3	0.3	-	3.9	7.3	-	-	-	-	-	-	-	-	0.7	
후천적 원인	질환	38.3	82.1	49.8	68.2	52.8	20.8	12.3	82.4	92.5	88.1	93.0	100.0	9.6	100.0	33.6	52.4
	사고	58.8	11.5	36.5	18.1	10.1	12.5	1.7	7.3	3.8	0.9	4.1	-	63.9	-	23.7	36.6
원인불명	1.2	1.9	8.0	9.7	14.3	39.6	65.5	9.4	1.7	0.9	2.9	-	7.2	-	33.9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70)	(687)	(566)	(593)	(50)	(289)	(58)	(201)	(106)	(108)	(76)	(34)	(11)	(38)	(38)	(5,425)	
전국추정수	987,129	264,536	218,460	227,513	19,433	110,520	22,836	77,180	40,286	41,684	29,568	13,012	3,965	14,634	14,555	2,085,311	

주: 무응답 41건 제외

이러한 장애에 대하여 발견이나 진단 직후 1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경우는 78.5%에 불과하고, 나머지 21.5%는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즉시 치료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33.0%),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올 것 같아서(21.8%), 장애에 대한 무관심·무지 때문에(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9〉 장애진단 후 즉시 치료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33.1	20.9	44.1	37.6	-	23.1	-	20.2	14.9	85.0	69.6	31.7	-	-	30.9	33.0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	24.8	35.1	9.4	22.8	17.9	14.3	46.0	25.2	34.1	15.0	30.4	36.8	-	100.0	-	21.8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9.1	6.3	8.0	4.6	-	8.4	-	3.9	-	-	-	-	-	-	13.4	6.9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4.5	-	7.8	9.3	-	9.0	-	-	-	-	-	-	-	-	-	5.4
치료받기 싫어서	0.7	-	-	1.3	-	-	-	8.1	34.9	-	-	-	-	-	-	1.6
주위의 시선때문에	-	-	-	-	-	3.0	-	5.1	-	-	-	-	-	-	-	13.8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5.0	-	3.2	3.6	20.4	-	9.7	-	-	-	-	-	-	-	-	3.5
시간이 없어서	2.2	-	-	1.2	-	4.7	-	-	-	-	-	-	-	-	-	1.5
장애에 대한 무관심·무지 때문에	12.9	30.6	24.2	16.9	16.9	31.3	11.6	37.4	16.2	-	-	31.6	-	-	41.9	19.5
치료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	2.0	-	-	-	-	-	12.2	-	-	-	-	-	-	-	-	1.0
기타	5.9	7.0	3.4	2.6	44.8	6.2	20.5	-	-	-	-	-	100.0	-	-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51)	(14)	(61)	(82)	(5)	(35)	(9)	(24)	(6)	(6)	(3)	(3)	(1)	(1)	(7)	(408)
전국추정수	57,611	5,601	23,333	31,164	1,937	13,893	3,400	9,420	2,525	2,290	1,265	1,156	382	382	2,640	156,999

주: 비해당(진단 직후 치료 받거나, 치료받지 않은 경우) 5,058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 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일상생활동작의 측정도구 체크리스트인 Modified Barthel Index(Granger 등, 1979)를 모든 장애유형에 적용하여 80~100점을 경도로, 43~79점을 중등도로, 0~42점까지를 중도로 구분하였음.

- 그 결과 경도가 90.3%였고, 중등도가 5.2%, 중도가 4.5%였음.
- 장애유형별로도 전반적으로 경도의 비율이 높았고, 다만 뇌병변장애가 중등도 및 중도의 비율이 각각 17.0%, 22.1%로 중증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음.

〈표 10〉 Barthel index에 따른 장애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지체)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도	94.5	60.8	97.3	98.6	95.8	87.4	82.1	98.6	90.3	93.4	85.1	74.4	100.0	94.9	98.0	90.3
중등도	3.1	17.0	2.3	0.9	2.1	8.4	14.6	1.4	7.9	3.9	12.2	8.5	-	5.1	-	5.2
중도	2.4	22.1	0.3	0.5	2.1	4.2	3.3	-	1.8	2.6	2.7	17.0	-	-	2.0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 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서는 전반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의 응답율이 높았음.

- 항목별로 대변 조절(참기)하기 (92.6%), 식사하기(92.4%), 의자⇔침상으로 옮겨앉기(92.4%), 소변 조절(참기)하기(92.2%)가 ‘스스로 할 수 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목욕하기’와 ‘계단 오르내리기’가 각각 80.2%, 76.9%로 가장 낮았음.

〈표 11〉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할 수 없다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하다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스스로 할 수 있다	계
개인위생(양치질, 머리빗기, 세면 등)	3.2	2.0	2.1	4.2	88.4	100.0
목욕하기	4.9	3.6	4.3	7.1	80.2	100.0
식사하기	2.1	1.3	1.3	2.9	92.4	100.0
화장실 사용하기	3.5	1.7	1.4	2.5	91.0	100.0
계단 오르내리기	6.3	3.2	4.8	8.8	76.9	100.0
옷 입고 벗기	4.3	3.2	4.0	7.7	80.7	100.0
배변(대변) 조절하기(참기)	3.4	1.1	0.9	2.1	92.6	100.0
배변(소변) 조절하기(참기)	3.1	1.1	1.2	2.4	92.2	100.0
보행하기	4.8	2.7	2.9	7.1	82.5	100.0
의자 ⇔ 침상으로 옮겨 앉기	3.2	1.3	1.1	2.1	92.4	100.0

□ 재가장애인의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서는 전반적으로 ‘완전 자립’의 응답율이 높았음.

- 항목별로 약챙겨먹기(85.6%), 몸단장하기(81.7%), 상점이나 가게에서 물건사기(78.3%), 근거리 외출(교통수단 없이)하기 (77.7%)는 ‘완전 자립’의 비율이 높았고, 빨래하기, 식사준비, 집안일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는 ‘완전 도움’의 비율이 높았음.

〈표 12〉 재가장애인의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정도

(단위: %)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몸단장하기	81.7	13.0	5.3	100.0
집안일(일상적인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 하기	65.6	21.3	13.1	100.0
식사준비(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하기	65.2	20.8	14.0	100.0
빨래(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이용하는 상관없이) 하기	68.1	17.5	14.3	100.0
근거리 외출하기(교통수단 없이)	77.7	13.1	9.2	100.0
교통수단 이용하기	68.0	19.1	12.9	100.0
상점이나 가게에서 사고 싶은 물건 사기	78.3	12.2	9.5	100.0
금전관리하기	72.3	15.3	12.4	100.0
전화사용하기	76.7	13.4	9.9	100.0
약 챙겨먹기	85.6	8.5	5.9	100.0

□ 장애인의 약 64.6%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5.4%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다른 장애에 비해 발달장애(91%), 정신지체(82.1%), 뇌병변장애(76.1%)를 가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3〉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시 타인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혼자서 스스로	60.3	14.7	63.2	45.2	43.8	7.1	1.8	35.9	53.0	42.2	39.6	60.2	82.0	50.2	46.0	47.8
대부분 혼자서	17.5	9.2	12.8	28.7	23.1	10.8	7.2	15.3	13.2	26.2	13.8	5.8	-	24.0	31.0	16.8
일부도움 필요	14.8	24.8	15.4	19.5	23.3	37.6	35.8	23.2	19.5	19.4	26.1	8.4	18.0	19.9	15.9	18.8
대부분 필요	4.5	21.6	6.1	5.4	6.0	26.1	29.5	20.2	8.6	6.6	16.3	-	-	6.0	2.6	9.2
거의 남의도움 필요	2.8	29.7	2.5	1.2	3.9	18.4	25.7	5.3	5.8	5.7	4.2	25.6	-	-	4.5	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실제로 도움 제공자가 있는 경우는 86.7%이며, 없는 경우는 13.3%임.

〈표 14〉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81.5	96.2	80.9	76.7	86.8	95.3	100.0	91.1	94.1	80.8	89.7	93.2	100.0	84.9	95.3	86.7
없다	18.5	3.8	19.1	23.3	13.2	4.7	-	8.9	5.9	19.2	10.3	6.8	-	15.1	4.7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18)	(588)	(208)	(319)	(28)	(269)	(57)	(130)	(50)	(63)	(47)	(14)	(2)	(20)	(21)	(2,834)
전국추정수	395,099	226,981	80,713	122,575	10,793	103,043	22,465	49,456	18,946	24,104	18,104	5,331	786	7,707	7,863	1,093,966

주: 비례당(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2,623건 및 무응답 9건 제외

도움 제공자는 배우자 47.1%, 자녀(며느리, 사위) 21.7%, 부모 18.3%, 형제·자매 3.8% 등으로 도움 제공자의 대부분(90.9%)은 가족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15〉 재가장애인의 도움 주는 사람과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배우자	59.0	52.8	53.8	44.6	46.7	7.6	-	17.2	56.5	66.9	63.9	60.7	48.6	87.7	26.0	47.1
부모	6.3	9.8	4.5	4.5	33.1	68.7	93.0	52.3	6.6	8.0	9.2	15.2	-	-	59.3	18.3
자녀(며느리, 사위)	23.5	24.8	28.7	41.9	4.1	2.7	-	4.5	30.2	19.2	12.3	24.1	51.4	5.9	-	21.7
형제·자매	3.0	2.8	2.8	1.1	4.0	9.9	4.0	9.6	4.5	-	2.3	-	-	-	9.9	3.8
조부모	0.3	0.2	-	-	3.8	4.5	1.2	-	-	-	-	-	-	-	-	0.7
손자녀	0.7	0.8	1.8	1.6	-	-	-	-	-	-	-	-	-	6.4	-	0.8
기타 가족	0.4	0.4	1.2	0.5	-	2.1	-	1.9	-	-	-	-	-	-	-	0.7
친척	0.6	0.3	-	1.2	3.7	1.6	-	1.5	-	-	2.5	-	-	-	-	0.7
친구	0.6	-	0.7	-	-	0.4	-	-	-	-	-	-	-	-	-	0.3
이웃	1.7	1.0	2.0	2.0	-	1.3	-	1.5	-	2.1	-	-	-	-	-	1.4
유료 가정봉사원, 간병인, 활동보조인	2.2	5.8	0.6	-	4.5	0.4	-	2.5	-	-	-	-	-	-	-	2.4
무료 가정봉사원, 간병인, 활동보조인	1.4	0.6	3.3	1.7	-	-	-	2.1	2.2	3.8	7.0	-	-	-	4.7	1.4
기타	0.2	0.5	0.6	0.9	-	0.8	1.8	6.9	-	-	2.8	-	-	-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30)	(566)	(168)	(243)	(24)	(257)	(57)	(118)	(47)	(51)	(42)	(13)	(2)	(17)	(20)	(2,455)
전국추정수	322,141	218,423	65,273	93,596	9,364	98,219	22,465	45,070	17,837	19,483	16,236	4,970	786	6,542	7,496	947,901

주: 비례당(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음 및 일상생활 도우미 없는 경우) 3,010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 다. 외출 불편 정도

장애인의 55.2%가 집밖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 특히 뇌병변장애(85.5%), 호흡기장애(84.5%), 안면장애(79.5%)를 가진 장애인이 집밖활동의 불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16〉 재가장애인의 외출(집밖 활동) 불편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불편	20.2	54.7	22.3	15.2	11.7	27.5	34.7	20.9	26.0	24.8	49.3	30.8	21.7	25.1	22.3	25.2
약간 불편	31.2	28.8	30.2	27.8	26.6	30.0	34.0	24.4	22.6	36.7	24.2	33.6	44.8	29.4	37.5	30.0
불편하지 않은 편	33.3	14.7	29.9	43.1	48.0	30.0	22.6	31.0	38.2	31.7	24.0	23.8	26.7	37.6	27.5	31.4
전혀 불편하지 않음	15.4	1.8	17.6	13.9	13.7	12.5	8.7	23.8	13.2	6.7	2.5	11.9	6.8	7.9	12.8	1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0)	(608)	(567)	(583)	(49)	(286)	(59)	(182)	(106)	(108)	(74)	(33)	(12)	(40)	(37)	(5,304)
전국추정수	986,201	243,517	219,216	224,246	19,440	109,779	23,259	71,853	40,286	41,684	29,037	13,397	4,369	15,466	14,271	2,056,021

주: 비례당(전혀 외출하지 않음) 154건 및 무응답 8건 제외

장애인이 집밖 활동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35.7%),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27.4%), 기타(22.8%),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14.0%)의 순으로 나타남.

〈표 17〉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관련 편의시설부족	46.4	36.6	33.6	19.1	10.7	10.0	11.5	7.6	27.1	30.9	44.2	23.1	-	25.6	4.7	35.7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14.7	36.5	32.6	39.0	50.5	62.3	47.6	42.6	33.8	25.6	18.7	28.4	-	6.0	40.7	27.4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15.7	10.1	8.8	9.9	27.8	22.1	35.8	28.3	1.5	2.9	3.8	4.6	100.0	22.9	12.6	14.0
기타	23.1	16.8	24.9	31.9	11.0	5.6	5.0	21.4	37.7	40.6	33.2	43.9	-	45.5	42.0	2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03)	(507)	(297)	(247)	(18)	(160)	(41)	(81)	(52)	(67)	(54)	(21)	(8)	(22)	(22)	(2,900)
전국추정수	501,699	194,421	114,817	96,101	7,050	62,419	15,984	31,371	19,580	25,664	20,962	7,821	2,905	8,424	8,531	1,117,749

주: 비해당(전혀 외출하지 않음 및 집밖 활동시 불편함이 없는 경우) 2,559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 라. 재활보조기구 소유 현황

재활보조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45.8%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재활보조기구 소유율은 장루·요루장애인 97.5%, 시각장애인 68.9%, 청각장애인 63.7%, 뇌병변장애인 63.2%의 순임.

〈표 18〉 재가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소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43.2	63.2	68.9	63.7	18.1	3.5	5.3	1.5	25.8	19.4	61.4	20.5	18.0	97.5	11.3	45.8
없다	56.8	36.8	31.1	36.3	81.9	96.5	94.7	98.5	74.2	80.6	38.6	79.5	82.0	2.5	88.7	5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 재활보조기구 중 전동휠체어를 소지한 장애인은 11,198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동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49,680명으로 나타남.

–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는 장애인 중 약 68.3%가 ‘구입비용 때문’에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전동휠체어 소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필요	불필요	계
소지	88.5% (11,198)	11.5 (1,448)	100.0 (12,646)
미소지	3.7 (49,680)	96.3 (1,280,828)	100.0 (1,330,508)
계	4.5 (60,878)	95.5 (1,282,276)	100.0 (1,343,154)

마. 정보통신기기 보유율 및 사용율

□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은 휴대폰 55.2%, 컴퓨터 50.0%, 인터넷 48.3%의 순으로 나타남.

– 사용률은 휴대폰 81.2%, 컴퓨터 36.4%, 인터넷 36.0%의 순으로 나타남.

〈표 20〉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지체)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휴대폰	보유율	69.7	30.5	63.2	39.5	39.5	20.9	5.3	32.0	73.2	59.0	58.2	57.3	75.2	53.9	45.9	55.2
	사용율	88.4	56.0	84.2	74.5	83.4	42.7	21.7	63.6	90.6	81.7	81.0	95.5	100.0	95.4	72.1	81.2
컴퓨터 (PC)	보유율	53.9	41.9	50.9	41.3	52.8	50.1	78.0	40.1	58.4	46.1	37.8	49.0	66.2	52.3	56.6	50.0
	사용율	42.3	16.2	35.4	28.4	24.2	46.8	50.5	31.9	44.1	25.5	19.4	24.9	76.4	17.7	49.1	36.4
인터넷	보유율	52.2	41.0	48.6	41.0	50.9	46.7	78.0	37.1	56.4	44.1	36.5	49.0	66.2	47.3	56.6	48.3
	사용율	42.1	16.2	35.1	28.1	25.0	40.6	50.7	31.7	44.8	26.4	17.4	31.6	76.4	19.2	49.1	36.0

### 3. 재가장애인의 사회적 특성

#### 가. 취학 현황

-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취학형태는 일반보육시설 42.9%, 일반학교내 특수반 8.0%, 장애아 전담학교 49.1%임.

〈표 21〉 장애영유아의 이용 보육시설 형태

(단위: 명, %)

구분	일반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내 특수반	장애아 전담학교	계
보육시설	4,286	804	4,911	10,001
구성비	42.9	8.0	49.1	100.0

-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취학형태는 일반유치원 76.9%,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23.1%임.

〈표 22〉 장애영유아의 이용 유치원 형태

(단위: 명, %)

구분	일반유치원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계
유치원	2,485	747	3,232
구성비	76.9	23.1	100.0

-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65,375명으로 추정되며, 취학 형태는 일반학교 38.8%, 일반학교 특수학급 35.1% 그리고 나머지 26.1%는 특수학교에 취학하고 있음.

〈표 23〉 재가장애학생의 취학 형태

(단위: %, 명)

구분	일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계
초등학교	40.2(10,620)	41.3(10,919)	18.5(4,894)	100.0(26,433)
중학교	39.8(8,436)	29.0(6,153)	31.2(6,618)	100.0(21,207)
고등학교	35.5(6,298)	33.2(5,884)	31.3(5,553)	100.0(17,735)
구성비	38.8(25,354)	35.1(22,956)	26.1(17,065)	100.0(65,375)

나. 결혼생활·여성장애인

- 20세 이상 재가장애인의 결혼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배우가 62.9%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사별 17.3%, 미혼 12.3%이었음.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미혼 및 유배우 비율이 높았고, 사별은 여자가 더 높았음.

〈표 24〉 재가장애인의 결혼상태 - 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미혼	14.9	8.4	12.3
유배우	72.5	48.8	62.9
사별	4.8	35.7	17.3
이혼	6.4	5.7	6.1
별거	1.5	1.4	1.5
계	100.0	100.0	100.0
(N)	(3,108)	(2,115)	(5,223)
전국추정수	1,193,669	811,848	2,005,517

주: 비해당(20세 미만) 243건 제외

- 20세 이상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결혼상태에서는 20대가 미혼(85.2%)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유배우 비율은 50대가 가장 높으나 30대 이후로는 유배우가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25〉 재가장애인의 결혼상태 - 연령별

(단위: %, 명)

결혼상태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 이상	전체
미혼	85.2	37.9	13.4	3.7	1.7	0.5	12.3
유배우	14.1	53.7	69.4	74.6	74.3	51.6	62.9
사별	-	0.4	3.5	9.1	18.5	46.6	17.3
이혼	-	6.9	11.5	10.3	4.1	0.9	6.1
별거	0.7	1.2	2.3	2.3	1.4	0.4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80)	(523)	(995)	(1,065)	(1,172)	(1,188)	(5,223)
전국 추정수	108,539	203,035	383,408	407,853	446,885	455,797	2,005,517

주: 비해당(20세 미만) 243건 제외

- 임신경험이 있는 20세 부터 49세 사이의 여성장애인 중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30.6%, ‘장애인 본인의 건강약화’ 20.1%, ‘집안 일 하기가 힘들어서’ 18.7%의 순으로 나타남.

〈표 26〉 여성장애인의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

(단위: %,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계
본인의 건강약화	6.7	19.1	22.0	13.9	20.1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26.7	21.3	16.7	28.2	18.7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	13.3	9.0	6.1	4.2	7.2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	26.7	22.5	35.6	22.2	30.6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	4.5	1.5	2.3	2.7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6.7	6.7	6.8	9.7	6.6
가족들의 출산 반대	-	2.2	3.0	1.9	2.6
병원의 시설설치 미비	-	-	-	0.9	0.4
병원내 의사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	-	-	-	-
주위의 시선때문에	6.7	3.4	2.3	2.3	2.7
기타	6.7	2.2	0.8	2.3	1.8
없음	6.7	9.0	5.3	12.0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15)	(89)	(132)	216	(452)
전국추정수	6,005	33,800	50,718	82,904	173,427

주: 비해당 5,004건 및 무응답 10건 제외

- 출산 경험이 있는 20세 부터 59세 사이의 여성장애인 중 출산 후 산후 조리의 충분정도는 ‘별로 또는 전혀 못했음’이 66.6%로 절반 이상이 산 후 조리를 잘 못한 것으로 보임.

〈표 27〉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충분히 했음	39.1	25.4	21.9	9.1	17.0
대체로 잘 했음	36.4	28.7	19.7	20.4	22.3
별로 못했음	24.5	39.8	44.0	40.0	40.6
전혀 못했음	-	6.1	14.4	30.5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14)	(78)	(122)	(197)	(411)
전국추정수	5,587	29,621	46,885	75,739	157,832

주: 비해당 5,052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 20세 이상 결혼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는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산후조리 서비스’,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가 각각 64.6%, 61.8%, 61.3%, 60.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28〉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별로 필요 안함	전혀 필요 안함	전체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51.1 (431,026)	37.1 (312,912)	6.4 (53,742)	1.0 (8,036)	100.0 (805,716)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61.8 (497,838)	31.7 (255,469)	5.4 (43,725)	1.0 (8,149)	100.0 (805,181)
출산비용 지원	64.6 (520,511)	32.9 (265,494)	1.9 (15,087)	0.6 (5,042)	100.0 (806,134)
산후조리서비스	61.3 (494,218)	35.4 (285,576)	2.6 (21,275)	0.7 (5,463)	100.0 (806,532)
육아용품대여	46.2 (372,089)	43.0 (346,509)	9.6 (77,149)	1.2 (10,052)	100.0 (805,799)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60.6 (488,661)	35.6 (287,045)	3.2 (25,825)	0.5 (4,274)	100.0 (805,805)
가사도우미	55.0 (443,158)	36.2 (291,737)	7.8 (63,163)	1.0 (8,112)	100.0 (806,170)
건강관리 프로그램	47.7 (384,094)	42.7 (343,666)	8.4 (67,299)	1.2 (9,492)	100.0 (804,551)

#### 4. 재가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 가. 경제상태

-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301.9만원)의 52.1%로써 2000년 당시 46.4%보다 5.7% 포인트 증가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77.5만원, 광역시 162.2만원, 중소도시 168.1만원, 읍·면부 127.5만원으로 각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8.8%, 53.7%, 55.7%, 42.2% 수준임.
  - 가구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는 53.0만원이고, 2인 102.2만원, 3인 160.8만원, 4인 207.8만원, 5인 248.7만원, 6인 이상 가구 303.4만원 등임.

〈표 29〉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단위: 만원, %)

구분	서울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부	계
가구 소득액	177.5	162.2	168.1	127.5	157.2
가구소득액/도시근로자 가계소득 <sup>1)</sup>	58.8	53.7	55.7	42.2	52.1

주: 1) 도시근로자가계소득(301.9천원; 2005년 2/4분기)에 대한 장애인 가구소득의 비율임.

자료: 1)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5. 10.

- 장애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3.1%로서 비장애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비율 6.8%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표 30〉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재가장애인 비율

(단위: %, 가구)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비생활보장 대상자	계
	일반수급가구	조건부수급가구	의료·교육·자활특례		
장애인가구 구성비	11.5	0.7	0.9	86.9	100.0
(전국 추정수)	223,816	14,201	17,565	1,689,209	1,944,791
비장애인 가구 구성비 <sup>1)</sup>	4.7			93.2	100.0

자료: 1)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DB)

□ 재가장애인의 67.4%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5.4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인이 357.0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신장장애 343.9천원, 발달장애 323.1천원, 장루·요루장애 283.9천원, 뇌병변장애 272.8천원의 순임.
-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90.2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2.9천원임.

〈표 31〉 재가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 장애유형별

(단위: 천원)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지폐)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계
총 추가비용	120.5	272.8	78.1	55.8	112.0	156.5	323.1	106.3	343.9	121.8	237.6	357.0	279.0	283.9	115.0	155.4
교통비	23.1	33.5	13.9	7.0	13.5	24.2	49.3	11.6	42.9	15.1	19.4	46.9	9.3	18.0	10.6	22.9
의료비	69.1	159.3	39.3	22.5	44.9	30.6	33.6	84.8	280.2	104.5	184.0	267.0	47.7	178.3	56.2	90.2
교육비	0.2	5.9	0.4	2.7	36.5	47.5	177.6	1.3	0.0	0.0	0.0	0.0	0.0	0.0	0.0	6.1
보호·간병인	8.2	44.7	0.0	0.3	0.0	0.0	0.8	0.0	5.7	0.0	13.9	2.4	0.0	3.1	0.0	11.8
재활기관이용료	0.6	3.1	0.0	0.1	5.1	23.9	22.0	0.2	0.0	0.0	0.0	0.0	0.0	0.0	0.0	2.1
통신비	0.6	0.5	2.9	2.7	0.0	5.9	2.4	0.9	0.8	0.3	0.5	0.2	0.0	0.1	0.0	1.2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5.1	3.2	8.8	17.0	0.1	1.1	0.4	0.0	4.1	0.6	19.6	0.0	1.5	80.7	0.0	6.4
부모사후대비비	10.6	4.1	11.4	2.2	7.7	17.8	33.0	4.5	4.3	1.1	0.0	0.0	220.5	0.0	38.9	8.8
기타	3.1	18.5	1.5	1.5	4.3	5.5	4.1	3.0	5.8	0.3	0.2	40.4	0.0	3.8	9.3	6.0

나. 취업상태

□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2%이며 2000년의 34.2%와 유사한 수준임.

- 실업률은 10.6%로써 전체 실업률(2005년 6월) 3.3%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임.

〈표 32〉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32,363	2,560	1,728	832	29,803	7.91	67.50	32.50	5.34
20~29세	107,808	51,068	39,923	11,145	56,740	47.37	78.18	21.82	37.03
30~39세	203,035	115,922	99,022	16,900	87,113	57.09	85.42	14.58	48.77
40~49세	383,408	224,166	202,845	21,321	159,242	58.47	90.49	9.51	52.91
50~64세	628,285	275,704	249,580	26,124	352,581	43.88	90.52	9.48	39.72
65세+	681,889	107,739	101,857	5,882	574,150	15.80	94.54	5.46	14.94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전국 <sup>1)</sup>	38,468,000	23,976,000	23,191,000	785,000	14,511	62.3	96.7	3.3	60.29

자료: 1)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5. 10.

□ 장애인 미취업원인 고려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이 34.1%임.

-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4%로서 2000년의 47.8%보다 3.4% 포인트 감소함.

〈표 33〉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32,363	3,732	1,728	2,004	28,631	11.53	46.30	53.70	5.34
20~29세	107,808	66,412	39,923	26,489	41,396	61.60	60.11	39.89	37.03
30~39세	203,035	128,822	99,022	29,800	74,213	63.45	76.87	23.13	48.77
40~49세	383,408	252,371	202,845	49,526	131,037	65.82	80.38	19.62	52.91
50~64세	628,285	325,407	249,580	75,827	302,878	51.79	76.70	23.30	39.72
65세+	681,889	126,525	101,857	24,668	555,364	18.56	80.50	19.50	14.94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 ILO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822천명임.

-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3.5%이고, 여성장애인은 20.22%로써,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34〉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213,801	591,930	528,508	63,422	621,871	48.77	89.29	10.71	43.54
여자	822,987	185,229	166,447	18,782	637,758	22.51	89.86	10.14	20.22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 장애인 미취업 원인 고려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208.3천명임.

- 실업률은 23.1%로서 2000년의 28.4%에 비해 5.3% 포인트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 장애인은 21.1%, 여자는 28.8%로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7.7% 포인트 높게 나타남.

〈표 35〉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213,801	669,565	528,508	141,057	544,236	55.16	78.93	21.07	43.54
여자	822,987	233,704	166,447	67,257	589,283	28.40	71.22	28.78	20.22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 ILO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재가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언어장애인(46.6%)인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심장장애, 신장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장애, 지체장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지체장애	991,111	489,160	437,419	51,741	501,951	49.35	89.42	10.58	44.13
뇌병변장애	255,928	24,497	22,257	2,240	231,431	9.57	90.86	9.14	8.70
시각장애	216,809	96,435	83,770	12,665	120,374	44.48	86.87	13.13	38.64
청각장애	224,079	88,653	81,452	7,201	135,426	39.56	91.88	8.12	36.35
언어장애	17,097	8,798	7,959	839	8,299	51.46	90.46	9.54	46.55
정신지체	90,615	21,774	18,973	2,801	68,841	24.03	87.14	12.86	20.94
발달장애	7,303	421	421	0	6,882	5.76	100.00	0.00	5.76
정신장애	77,180	13,473	12,302	1,171	63,707	17.46	91.31	8.69	15.94
신장장애	40,286	9,556	8,037	1,519	30,730	23.72	84.10	15.90	19.95
심장장애	39,754	7,515	5,954	1,561	32,239	18.90	79.23	20.77	14.98
호흡기장애	29,953	5,912	5,912	0	24,041	19.74	100.00	0.00	19.74
간장애	13,069	1,525	1,525	0	11,544	11.67	100.00	0.00	11.67
안면장애	3,987	1,757	1,757	0	2,230	44.07	100.00	0.00	44.07
장루·요루장애	15,466	5,146	5,146	0	10,320	33.27	100.00	0.00	33.27
간질장애	14,151	2,537	2,071	466	11,614	17.93	81.63	18.37	14.64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 장애인 미취업 원인 고려시, 재가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언어장애인(46.5%)인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발달장애, 간질장애, 정신지체, 심장장애, 정신장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지체장애	991,111	548,311	437,419	110,892	442,800	55.32	79.78	20.22	44.13
뇌병변장애	255,928	36,883	22,257	14,626	219,045	14.41	60.34	39.66	8.70
시각장애	216,809	109,783	83,770	26,013	107,026	50.64	76.31	23.69	38.64
청각장애	224,079	99,851	81,452	18,399	124,228	44.56	81.57	18.43	36.35
언어장애	17,097	9,183	7,959	1,224	7,914	53.71	86.67	13.33	46.55
정신지체	90,615	32,672	18,973	13,699	57,943	36.06	58.07	41.93	20.94
발달장애	7,303	1,541	421	1,120	5,762	21.10	27.32	72.68	5.76
정신장애	77,180	20,510	12,302	8,208	56,670	26.57	59.98	40.02	15.94
신장장애	40,286	12,038	8,037	4,001	28,248	29.88	66.76	33.24	19.95
심장장애	39,754	10,236	5,954	4,282	29,518	25.75	58.17	41.83	14.98
호흡기장애	29,953	7,450	5,912	1,538	22,503	24.87	79.36	20.64	19.74
간장애	13,069	2,338	1,525	813	10,731	17.89	65.23	34.77	11.67
안면장애	3,987	2,156	1,757	399	1,831	54.08	81.49	18.51	44.07
장루·요루장애	15,466	6,315	5,146	1,169	9,151	40.83	81.49	18.51	33.27
간질장애	14,151	4,002	2,071	1,931	10,149	28.28	51.75	48.25	14.64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 비경제활동 및 실업장애인 중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45.0%가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서’ 24.7%,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10.5%의 순이었음.

〈표 38〉 비경제활동 및 실업 장애인 중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 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3.6(23,468)	1.5(9,836)	2.5(33,304)
임금이 너무 낮아서	0.2(1,484)	0.1(775)	0.2(2,259)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14.4(94,633)	6.5(42,825)	10.5(137,458)
작업환경(편의시설등)이 열악해서	0.2(1,100)	0.2(1,121)	0.2(2,221)
출·퇴근이 힘들어서	0.0(285)	0.3(1,933)	0.2(2,218)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47.6(312,812)	42.5(277,964)	45.0(590,776)
다른 질병때문에	3.3(21,913)	2.5(16,435)	2.9(38,348)
나이가 많아서	20.4(133,869)	29.0(189,795)	24.7(323,664)
가사·육아문제때문에	0.1(792)	8.9(57,994)	4.5(58,786)
취업정보, 취업방법을 몰라서	0.4(2,358)	0.4(2,761)	0.4(5,119)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1.7(11,127)	0.7(4,637)	1.2(15,764)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2.5(16,743)	5.7(37,429)	4.1(54,172)
취업 이외의 준비때문에	0.3(2,237)	0.1(386)	0.2(2,623)
재학중이기 때문에	3.4(22,228)	1.3(8,517)	2.3(30,745)
기타	1.9(12,411)	0.3(2,257)	1.1(14,668)
계	100.0(657,460)	100.0(654,665)	100.0(1,312,125)

□ 취업장애인의 취업 분야는 주로 단순노무직(27.6%), 농·어업(19.0%), 기능원·관련 기능근로자(12.3%)에 편중되어 있음.

※참고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주로 사무종사자(14.2%), 서비스종사자(12.9%), 판매종사자(11.5%)의 비율이 높음.

〈표 39〉 재가 취업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단위: %)

구분	의회의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어업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단순 노무직	계
장애인 비율	1.0	2.6	5.4	6.3	7.2	8.9	19.0	12.3	9.7	27.6	100.0
전국 비율 <sup>1)</sup>	2.6	8.1	10.1	14.2	12.9	11.5	8.1	10.6	11.1	10.8	100.0

자료: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 8.

□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114.9만원으로 상용종업원(2005년 6월)의 월평균 임금 258.0만원의 44.5%로써, 2000년 당시 43.1%에 비해 약간 상승함.

-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이 176.6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신장장애인 153.8만원 등의 순임.
- 소득이 낮은 장애유형은 간질장애가 43.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정인지체 47.5만원임

〈표 40〉 취업 재가장애인의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지체)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 루장애	간질 장애	계
월평균 소득액	125.5	99.9	115.5	83.8	81.4	47.5	70.0	54.8	153.8	74.1	81.6	176.6	112.2	124.1	43.5	114.9

## 5.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 가. 장애인 등록제도

□ 장애인의 79.4%가 장애인 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됨.

- 신장장애의 등록률이 9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인지체와 지체장애의 등록률이 각각 92.0%와 87.0%로 높고, 심장 장애의 등록률이 34.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됨.

〈표 41〉 재가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87.0	76.5	78.4	62.2	76.5	92.0	81.0	68.7	97.2	34.1	51.7	51.3	45.6	61.9	54.9	79.4
아니오	10.8	22.5	20.0	36.9	19.6	7.7	17.3	29.7	1.8	64.1	46.8	46.0	37.0	35.7	43.2	18.8
신청중	0.6	0.5	0.2	0.5	3.9	0.3	1.7	1.0	0.0	1.0	0.0	2.7	0.0	0.0	2.0	0.6
보호처 등록	1.7	0.6	1.5	0.4	0.0	0.0	0.0	0.5	1.0	0.9	1.4	0.0	17.4	2.3	0.0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4)	(51)	(289)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4)
전국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570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362

주: 무응답 2건 제외

□ 미등록 장애인의 미등록 사유는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32.9%,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8.4%, ‘등록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 미등록 재가장애인의 미등록 사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 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 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34.3	46.3	27.7	25.4	18.6	18.0	0.0	28.8	100.0	30.0	48.2	43.2	22.9	65.4	18.1	32.9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13.6	12.5	19.9	14.4	29.3	18.3	19.5	6.8	0.0	8.5	5.7	6.4	0.0	11.4	18.7	13.5
등록하는 데 비용이 들 것 같아서	1.5	0.7	0.9	1.4	10.3	4.7	0.0	1.7	0.0	1.7	2.7	0.0	0.0	0.0	6.5	1.5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7.5	7.6	3.6	2.7	0.0	17.8	0.0	0.0	0.0	8.8	8.2	0.0	0.0	0.0	5.8	5.5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27.1	19.8	31.4	44.0	9.4	4.3	10.6	12.6	0.0	28.9	24.4	44.1	59.7	16.3	11.8	28.4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5.7	4.5	10.0	5.1	0.0	23.4	31.7	28.4	0.0	3.3	2.5	6.3	0.0	0.0	33.6	7.8
등록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2.8	2.4	3.6	5.1	20.0	3.7	0.0	1.3	0.0	4.0	2.8	0.0	0.0	6.9	0.0	3.4
앞으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것 같아서	1.1	1.9	0.0	0.4	12.4	0.0	38.2	12.0	0.0	4.7	0.0	0.0	0.0	0.0	0.0	2.2
기타	6.4	4.3	3.0	1.4	0.0	9.8	0.0	8.4	0.0	10.1	5.5	0.0	17.4	0.0	5.5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61)	(148)	(109)	(217)	(10)	(20)	(10)	(54)	(2)	(62)	(34)	(16)	(4)	(14)	(15)	(976)
전국추정수	107,398	59,755	43,805	84,102	3,886	8,120	4,022	22,539	745	26,707	14,027	6,160	1,617	5,523	6,284	394,690

주: 비혜당 4,487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 나. 장애인 자동차

장애인 가구 중 48.9%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

※참고로 2005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3만4천대임. 전체 자동차수의 71.1%를 차지하는 승용차 등록대수는 1,062만1천대이고, 이중 자가용 승용차는 1,027만4천대이고,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는 0.66대로 10가구 중 7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음.

〈표 43〉 차량소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 루장애	간질 장애	계
있다	53.5	46.1	43.4	44.9	50.7	48.3	82.1	24.2	53.9	49.7	29.6	48.5	71.2	34.9	43.3	48.9
없다	46.5	53.9	56.6	55.1	49.3	51.7	17.9	75.8	46.1	50.3	70.4	51.5	28.8	65.1	56.7	5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5)
전국 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729

주: 무응답 1건 제외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56.1%, 장애인 가구 중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66.4%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88.2%,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89.0%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았음.

〈표 44〉 차량소유 · 연료 · 표지발급 여부

(단위: %, 대)

구분	자동차 소유	
	활동제한지용	
	본인운전	보호자운전
소유	24.7(416,192)	24.7(318,834)
LPG 차량	56.1(233,279)	66.4(211,605)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88.2(366,969)	89.0(283,757)

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현황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79.9%,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79.1%, LPG 연료 사용허용 77.5%’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77.3%)’, ‘승용차 관련 세금 면제시책(67.3%)’ 등의 순임.
- 이러한 장애인 중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책은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으로써 인지장애인의 62.9%가 경험하였으며, 다음이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으로 46.5%의 장애인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 재가장애인의 우리나라 복지사업 내용의 인지도·이용경험률

(단위: %)

구분	인지율	이용경험률
장애수당 지급	44.2	12.8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12.2	0.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6.8	2.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4.1	0.6
장애인 의료비 지원	24.9	5.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11.1	3.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16.7	2.6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	15.8	3.0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79.1	35.5
LPG연료 사용 허용	77.5	25.6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67.3	20.7
세금 공제 및 면제	46.3	17.1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77.3	46.9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79.9	62.9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 감면 및 할인	53.0	22.6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19.3	3.3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실시(만 3세~만17세)	10.6	2.5

\* 중복응답 비율임.

-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인지율은 장애인복지관이 70.0%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63.1%), 재활병·의원(45.0%)의 순임.

〈표 46〉 재가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인지·이용경험·이용희망율  
(단위: %)

구분	인지율	이용경험율	이용 희망율
장애인복지관	70.0	13.7	40.1
장애인생활시설	31.0	1.7	16.4
중증장애인요양시설	38.5	0.7	18.5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7.9	0.4	0.8
사회복지시설	18.6	0.2	3.8
그룹홈	11.5	0.8	6.4
주간·단기 보호 시설	12.2	3.5	11.9
재활 병·의원	45.0	7.9	40.2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1.1	2.7	12.7
장애인전용 체육관	17.0	4.3	15.2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63.1	5.9	3.9
특수교육지원센터	19.6	2.9	4.7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0.9	1.8	11.4
점자도서관	28.1	0.9	1.2
수화통역센터	29.9	1.0	1.6
심부름센터	22.3	1.1	24.5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8.4	3.5	31.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6.1	7.2	17.4
장애아동보육시설	25.1	2.1	1.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33.1	6.7	20.1
교통안전공단	18.3	2.5	9.8
장애인자립지원센터	18.2	2.6	22.1

\*중복응답 비율임.

- 실제로 이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13.7%로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이 재활병·의원으로 7.9%임.
- 한편, 재활병·의원에 대한 이용희망이 가장 높고(40.2%), 다음이 장애인복지관(40.1%)이며,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이용희망율도 31.5%로 높게 나타남.

## 라. 복지서비스 욕구

-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48.9%)과 의료보장(19.0%)로 소득 및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 사회나 국가에 대해 2순위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이 35.9%로 가장 높았고, 3순위로 요구하는 사항은 주택보장이 14.9%로 가장 높았음.

〈표 47〉 재기장애인의 사회나 국가에 대한 복지욕구(우선순위)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보장	48.9	9.9	7.5
의료보장	19.0	35.9	9.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3.8	3.2	3.8
세계지원 확대	1.4	3.8	4.5
건물, 도로 등의 편의시설 확대	2.6	3.5	3.6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2.4	5.9	8.0
가사지원서비스 (간병인, 도우미 등)	2.3	3.0	5.4
주택보장	4.0	8.3	14.9
결혼상담 및 알선	0.7	1.1	1.1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2.4	3.2	4.3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개발·보급	1.3	2.5	3.1
특수교육의 확대 및 개선	0.6	1.5	1.2
문화 및 여가생활 기회의 확대	0.4	1.2	2.4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	2.3	4.3	9.7
장애아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0.8	1.6	2.5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3.7	4.3	8.1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2.5	5.2	6.6
없다	0.8	1.5	3.5
기타	0.3	0.1	0.2
계	100.0	100.0	100.0

## Ⅳ. 정책 건의 및 시사점

### 1. 장애예방사업 강화

□ 2000년에 이어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장애발생 원인 중 질환이나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89.0%)에 의한 장애가 발생 및 증가함에 따른 장애예방사업의 강화 필요

－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

• 심혈관질환, 신경계질환, 대사·면역 및 내분비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과 음주·흡연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특히 장애출현율이 높은 읍·면지역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 교통사고, 화상 등 각종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응급이송차량의 장비보강, 응급처치요원 훈련강화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

－ 모자보건사업 강화로 선천적·출생시 장애예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 및 주산기 응급의료체계 강화

### 2. 재활보조기구 등 보조공학 산업 육성

□ 보조공학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양질의 재활보조기구 보급

－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재활보조기구 산업체에 선진 기술 및 자금 지원

### 3. 직업재활사업의 강화

- 장애정도 및 장애유형별로 개별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체계 구축
  -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간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취업 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의 체계적인 접근전략 개발

### 4. 소득보장 강화

- 장애수당의 상향조정 및 장애유형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의 차별화 및 내실화
  - 전체 장애인의 월 평균 추가비용 155.4천원에 비해 간장애는 357.0천원, 신장장애는 343.9천원, 발달장애는 323.1천원 등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비용편차 보전 필요

### 5. 여성장애인 지원 대책 수립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 병원 건립, 산후 조리 서비스, 자녀양육 서비스 지원 필요

### 6.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 장애인 부양에 따른 가족의 소진 예방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강화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간병인·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의 활성화
- 장애인 생활시설의 확충(입소희망률 16.4%)
-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장애인의 인지율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의 홍보 강화

*Memo* \_\_\_\_\_